

## 역사적 지역 정체성의 지역민 소외 아이러니에 관한 이론적 고찰

A theoretical study on the irony of alienation of local people  
by historical local identity

이 동 현

Lee, Dong-Hyeon

(한국전통문화대학교 문화유산전문대학원 문화재수리기술학과 건축조경도시전공 박사과정)

설 혜 림

Seol, Hye-Lim

(한국전통문화대학교 문화유산전문대학원 문화재수리기술학과 건축조경도시전공 석사과정)

이 지 훈

Lee, Ji-Hoon

(한국전통문화대학교 문화유산전문대학원 문화재수리기술학과 건축조경도시전공 석사과정)

김 영 재\*

Kim, Young-Jae

(한국전통문화대학교 문화유산전문대학원 문화재수리기술학과 건축조경도시전공 부교수)

## Abstract

This study discusses various conflict situations and unexpressed pathological potential in historical regions. In this regard, the issue of alienation of local people due to local identity was raised and the cause was investigated. It explains the structural origins of local alienation that occurred in the process of objectifying a region and forming its identity. The process of alienation of local residents of local identity identified in this paper was divided and explained in three stages: objectification of the region, symbolization of local identity, and religious materialism of local identity. In addition, in the process, the incorporation of the production mode of intellectual work, the separation of producers, and the loss of the subject-centered control ability over these products were pointed out as problematic situations. The study suggests to change the perception of the region and to restore the control of the local people through narrative in relation to this problematic situation.

Thus, this thesis asserts that we need to have doubts about the justification for the public good and the basis of the resulting consensus, and that we should be constantly interested in the pathological signs of society around us.

주제어 : 지역, 지역 정체성, 장소, 소외, 문화유산

Keywords : Region, Local identity, Place, Alienation, Cultural Heritage

## 1. 들어가는 말

## 1.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종래의 문화유산 개념은 그 범주의 확장과 동시에 그 개념 자체의 진화를 거듭하고 있다. 우선 문화유산

으로 인식되는 대상의 범주는 점적인 대상에서 점차 면적·공간적인 대상으로 확장되어 갔으며, 그 안에 내재된 모든 역사·문화적 소산과 함께 기억, 의미, 경험적 내용을 포함하는 개념으로까지 발전하게 되었다.<sup>1)</sup> 이러한 경향 속에서 제시된 ‘장소’ 개념의 발전과 함께 지역이라는 ‘대상’ 또한 단순히 기존의 문화유산의 공간적 배경의 지위에서 제고되어 그 자체로서 문화유산

\* Corresponding Author : kyjandy@nuch.ac.kr

이 논문은 2021년도 정부(교육부)의 지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No. NRF-2021R111A4A01056401).

1) 이수정, 『문화재 보존윤리』, 2017, pp.27-42

적 복합체로 이해할 수 있게 되었다. 이러한 진화는 단순히 문화유산이라는 대상 안에서의 범주적 차이만 발생시키는 것이 아니라 문화유산이라는 대상을 어떻게 이해해야하는지에 대한 변화를 수반한다. 특히 현시점에 문화유산에 대한 이해는 문화유산으로 인식되는 어떠한 대상 자체에 대한 이해에서 그 대상과 상호작용하는 주체와의 관계에 대한 이해로 전이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문화유산의 해석과 설명, 사회적 수용에 대한 담론이 확산되고 있다.

이러한 배경에서 역사적 지역을 바라보았을 때, 그 어느 때보다 지역민에 의한 참여가 절실하며 그 의미가 거대하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지역 자체에 대한 인식과 지역민의 일상적 삶에 대한 인식 간의 괴리와 그 갈등 상황은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 또한 지역을 어떻게 대상화하고 다뤄야하는지에 대한 방법론이 명확하지 않은 실정이다. 이러한 상황에 대해 각계의 실천적 분야에서 문제의식을 가짐과 그에 따른 대중요법적 방법론이 지속적으로 제시되어 왔지만, 이 사회적 문제의 기저에 깔려있는 구조적인 원인에 대해서는 연구로써 다루진 사례가 드물다.

대개 역사적 지역 안에서의 지역민에 의한 갈등 상황은 문화유산으로 대변되는 공적·사회적인 가치와 이해관계자로 대변되는 지역민 개인의 권리 간의 대결구도로 묘사되고 그대로 이해되곤 하였다. 하지만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현재 갈등 상황을 사회병리학적 관점에서 지역 정체성에 의한 지역민의 소외로 진단하고 그 원인에 대해 다른 관점으로 고찰해보고자 하였다. 이로써 현재 역사적 지역에 대한 문화유산적 인식의 한계를 밝히고, 보존적 행위의 궁극적인 목적과 그 방향성을 고찰하고자 한다. 본 논문에서 다루고 있는 현재의 역사적 지역 안에서의 소외란 단순히 그 공간적 배경 안에서 일어나는 어떠한 과정에서 배제됨을 의미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철학적·윤리적 개념으로서 지역민이 그 안에서 주체성을 상실하는 것을 의미한다.

비록 소외 이론이 활발히 연구되던 1960년대나 1970년대에 비해 그 관심은 현저히 줄었으나, 현대사회의 제(諸)문제를 다룸에 있어서 가장 핵심이 되는 개념으로 소외를 제시하는 것에는 큰 무리가 없을 것이다. 마르크스가 자본주의 사회를 비판하기 위해 철학적·사회학적 개념으로 소외이론을 정립한 이래로 소외는 지금까지도 스스로를 변형해가며 다양한 형태로 인간의 주체성 상실을 야기하고 있으며, 사회가 점차 진보하고 있다는 믿음에도 불구하고 소외를 야기하는 조건들은

결코 약화되었거나 해소되었다고 보기 어렵다.<sup>2)</sup>

본 논문에서는 어떠한 역사적 지역이 정체성을 형성하는 과정을 장소의 기호화로 이해한다. 또한 이렇게 만들어진 지역 정체성이 그 안의 주체로서의 지역민 개인을 소외시키는 물신화 과정을 그 본래의 목적과 통제에서 벗어난 일종의 아이러니라고 규정한다. 역사적 지역의 정체성이 그 생산 과정에서부터 인간 존재에 대해 존재론적으로 구성하는 현존재(Being- There, Dasein)가 참되지 않은 주변 세계에 순응하여 그 자체를 잃어버리게 하는 모순을 만들어내는 것이다.<sup>3)</sup> 이에 본 논문은 지역 정체성을 둘러싸고 표출된 지역 안에서의 갈등의 원인 이해하고 그 안의 표현되지 않은 병리적인 잠재성을 발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에 소외에 관한 다양한 사회학적 이론을 재조명하고 접목하여 제시된 아이러니를 설명하고자 한다.

## 1-2. 연구의 범위와 방법

지역이 나타내는 정체성은 다양한 양상으로 나타날 수 있으나, 본 논문에서는 앞에서와 같이 문화유산을 대하는 기본 태도를 견지한 채 역사적 지역의 정체성을 바라보고 문제의식을 제기하였다. 제시된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우선적으로 고찰하는 대상의 명료화를 선행한다. 이에 지역민으로서의 개인과 개인의 정체성, 지역이라는 대상과 그 정체성에 대한 고찰을 시행한다. 이어서, 지역 정체성과 지역민 간의 상호 관계, 그리고 그 안에서 발생하는 소외 아이러니에 대한 고찰을 시행한다. 이 지역 정체성에 의한 지역민 소외 과정의 분석에서는 소외 개념을 주로 다룬 근현대 사회철학자들의 주요 저서들을 인용하여 담론을 전개하고자 하였다. 본고에서 주로 다루지는 철학자들에 대한 개요와 계보는 다음과 같다.

마르크스가 정립한 소외이론은 인간이 층상계급사회에 삶으로 인하여 그 본성으로부터 멀어지는(소외되는) 현상을 말한다. 인간 본질로부터 소외는 인간이 계급의 기계적 부품이 되고 인간성을 상실함으로써 발생하는 것<sup>4)</sup>이라고 할 수 있다. 또, 그는 루트비히 포이어바흐의 『기독교의 본질』에 영향을 받아 초현실적인 신이 존재한다는 관념이 인간을 인간의 자연한 특성으

2) 박홍원, 「인간 소외와 커뮤니케이션: 마르크스 소외이론의 현재적 함의」, 2014, p.101

3) 마르셀로 무스토, 「마르크스 소외 개념에 대한 재논의」, 경상국립대학교 사회과학연구원, 2011, p.90

4) 카를 마르크스, 『1844년 경제학 - 철학 수고』, 2006, p.90

로부터 소외시킨다는 주장을 발전시켜 나가고자 했다. 본 논문에서는 물질적인 영역을 넘어 정체성 형성이라는 지적인 영역에까지 그의 소외 이론이 적용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앙리 르페브르는 이러한 마르크스의 이론을 이어갔는데 넓은 의미로서 생산, 소외, 전체적 인간 개념을 마르크스 이론 속에서 중요한 문제로 인식해 재구성하고자 했다.<sup>5)</sup> 인간은 소유하는 것뿐만 아니라 보고, 듣고, 느끼고, 행동하는 것과 같은 세상과의 관계 속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확인하고 삶의 의미를 찾게 된다. 그것이 가능하지 않게 될 때 인간은 고립되고 소외된다는 것이다.<sup>6)</sup> 르페브르는 실천을 통해 인간은 자신과 함께 외부 세계를 변화시킬 수 있다는 결론에 이르렀고, 이러한 실천의 장으로서 일상공간에 주목하기 시작하였다. 이에 따라 본 논문에서 사용하게 될 ‘공간’, ‘장소’, ‘지역’과 그것들의 ‘생산’ 개념을 다루는데 있어 주로 인용하였다.

기 드보르는 자본주의 사회구조의 폐단을 비판하며 자본주의가 삶을 장악하는 방식, 즉 상품 경제 사회가 인간을 소외시키고 소유하는 방식을 스펙터클로 지칭하였다.<sup>7)</sup> 스펙터클은 마르크스의 용어로 말하자면 ‘상부구조’를 장악하는 동시에 개인들을 ‘하부구조’적 조건으로 먼저 환원시킨다. 이를 통해 문화, 매스미디어, 이미지 등을 지배함으로써 자본주의가 생산해내는 상품들을 소비자가 수동적으로 소유하고 소비하게만 만든다. 이러한 스펙터클 속에서 만들어지고 조작된 사회를 지역민이 바라보면서 자신이 인지하는 현재와 괴리감을 갖게 된다. 이 안에서 지역민은 자신이 가진 지역에 대한 인식과 자신에 대한 인식 모두 실추된다고 볼 수 있겠다. 르페브르와는 자본주의를 비판하면서 제시했던 사회 개념은 다르게 제시했지만, 그 사회 속에서 개인이 정체성을 잃고 고립, 소외된다는 흐름에서는 공통성을 가진다.

장 보드리야르는 스승인 르페브르의 영향을 받아 구조주의와 기호학적 방법을 응용한 네오마르크스적인 이론을 내세웠다.<sup>8)</sup> 그는 기호학과 연관 지어 마르크스의 이론을 발전시켰는데 생산력과 생산수단이 아닌 일상생활을 분석대상으로 삼았다는 점에서 기존의 마르크스주의들과는 분명한 차이가 있다. 소비를 코드의 규

칙으로 조직화되어 있는 하나의 기호 체계로 본 것이다. 이에 더해 그는 소외를 관념적으로 극복하고자 하는 모든 시도는 좌절될 수밖에 없고 소외의 극복은 불가능하다고 말했다.<sup>9)</sup> 기호가 실제 위상을 차지하게 되면서 실체가 소외(그 자리를 빼앗거나 대체됨)되는 것이다.

에리히 프롬은 자본주의 사회에 몸담고 있는 인간은 노동의 소외와 더불어 소비 과정에서도 소외를 당하고 있다며 현대사회에서 우리의 소외는 거의 전면적인 것이라고 말했다.<sup>10)</sup> 이전에 마르크스의 이론을 받아들여 적용했던 학자들과 다르게 소외로부터의 구제를 논하고자 했고 휴머니즘 측면에서 소외를 말하면서 현대사회가 인간의 성격을 병들게 하고 있음도 덧붙였다. 또, 그는 소외를 자기 자신을 생소한 사람으로 경험하는 경험양식으로 말하면서, 자기 자신의 행동이나 그 결과가 객체화되어 자기 자신을 지배하게 된다고 언급했다.

### 1-3. 기본개념 고찰

공간이 가지는 정체성과 관련된 연구는 대체로 도시 단위를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지역과 도시는 범주적 차이를 가지나, 그 안에 사회, 문화를 포괄하는 총체성을 가지는 대상으로서 유사 개념으로 인식할 수 있다. 또한 도시는 지역에서 일어나는 사회 문제를 집약적이고 구체적으로 드러내는 범주로서, 본 논문의 기본개념 고찰을 위한 선행연구 종합에서는 도시 정체성에 관한 연구 성과를 지역 정체성의 연구에 준용하고자 하였다.

도시 정체성의 개념에 대해 먼저 살펴보면, 도시 정체성이란 ‘동일성’과 ‘개별성’의 특성을 가진다. 동일성과 개별성의 특성을 구분하는 것은 정체성의 어원을 크게 두 가지로 분류할 수 있기 때문이다.<sup>11)</sup> 정체성(Identity)의 어원은 나라마다 차이가 있지만 모두 동일함(the same)을 뜻하는 라틴어 ‘Idem’에서 출발한 것으로 동일성은 변화에 대한 연속성 및 동일화로, 개별성은 특이성과 우월성이라는 의미를 가진다.<sup>12)</sup> 동일성과 개별성 안에서 그 각각의 의미는 【표1】에서 보는 것처럼 이해할 수 있다.

9) 장 보드리야르, 『소비의 사회:그 신화와 구조』, 2015, p. 78

10) 에리히 프롬, 『건강한 사회』, 1999, p.96

11) 신혜정, 「도시 정체성 재정립을 위한 지역자산 활용 방안에 관한 연구」, 영남대학교 대학원, 2021, p.16

12) E. Relph, 『Place and Placelessness』 (London : Pion Ltd), 1976, p.45

5) 앙리 르페브르, 『이론』, 1992, p.142

6) 박소영, 『앙리 르페브르:도시의 일상』, 2008, p.2

7) 기 드보르, 『스펙타클의 사회』, 2014, p.33

8) 박정자, 『시뮬라르크의 시대』, 2019, p.85

## 10 논문

표 1. 도시 정체성 개념

(출처: 신혜정, 「도시 정체성 재정립을 위한 지역자산 활용 방안에 관한 연구」, 영남대학교 대학원, 2021, 18쪽, 황기원의 1995년 연구를 종합하여 재가공)

구분	의미	
동일성	그 도시는 그 도시답다	
	연속성	- 시간의 흐름에도 불구하고 기본적인 무언은 변함없다. - 역사적으로 변치 않고 계속되는 물리적 또는 비물리적(건축물, 역사적 사실, 전설)요소의 존재
개별성	그 도시는 다른 도시와는 다르다	
	우월성	- 투입에 의한 동일화 : 그 도시에 관련되는 나는 그 도시와 동일하다는 감정 - 정합에 의한 동일화 : 지역주민 또는 방문객들의 그 도시에 대해 자부심, 귀속감, 친밀감의 정도
개별성	그 도시는 다른 도시와는 다르다	
	특이성	- 공동요소를 비교한 우월성 : 다른 도시에는 있는 요소들과 비교하여 더 뛰어나다 - 고유요소 존재에 의한 우월성 ① 그 도시는 다른 도시에는 없는 요소가 있어 더 뛰어나다 ② 다른 도시에 비해 비교우위를 접하는 정도

도시의 정체성과 관련한 연구는 Erik H.Erikson이 정체성에 대해 1956년에 『The Problem of Ego Identity』에서 말하면서 인식되기 시작했다. 그는 이 책에서 “정체성은 자아 내부에 있는 영속적 동일성(a persistent same within oneself)과 타아와 더불어 영속적으로 공유하는 몇몇 특성들을 모두 내포한다.”라고 말함으로써 정체성이 배타적 공유성과 상관적 공유성을 모두 지니고 있음을 주장했다.<sup>13)</sup>

Kevin Lynch는 그의 저서 『The Image of the City』에서 차별화된 도시 이미지를 형성하는 것은 환경과 관찰자 간의 상호 작용 과정의 결과이고, 환경적 이미지는 정체성(Identity), 구조(Structure), 의미(Meaning)의 세 가지로 구성된다고 주장하였다.<sup>14)</sup> 1980년대에 들어서면서 Harold M. Prochansky의 『Place-Identity: Physical world socialization of the self』 연구와 Edward Relph의 『장소와 장소 상실』 저서에서 각각 공간의 정체성 형성과 경관 측면에서 장소 정체성이 어떻게 확립되는지 살펴보고자 하였다.

13) 김규원 등, 「대구의 정체성 정립 및 도시브랜드 가치 제고 방안」, 대구경북연구원, 2010, p.9

14) 김현석, 변은영, 윤정인, 「서울색과 도시 정체성에 관한 연구」, 디자인학연구, 2012, p.305

국내에서도 1980년대에 들어와 김한배의 『우리 도시의 얼굴 찾기』(1988)라는 저서를 시작으로 해 지역 정체성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기 시작했다. 도시 정체성과 관련한 연구, 논문은 현재까지도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지만 기본적인 도시 정체성에 대한 개념은 황기원의 연구<sup>15)</sup>나 계기석, 천현숙의 연구<sup>16)</sup> 등에서 말하고 있는 내용(【표 1】)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판단된다.

지역 정체성의 기본 개념과 관련하여 선행연구를 종합하였을 때, 지역 정체성에 대한 기본 개념이란 지역이 가진 다양한 요소들의 통일된 자아로서 지역을 그 지역답게 만드는 ‘동일성’과 다른 지역과 차이를 만드는 ‘개별성’의 특성을 가짐으로서 형성된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지역의 구성원으로서 지역민은 지역 정체성 안에 ‘투입’되고 ‘정합’됨으로써 지역 정체성과 동일화된다. 기본적으로 지역민 개인의 정체성과 지역의 정체성의 관계는 직접적이고 지속적인 상호대화적 관계라고 이해할 수 있다.

## 2. 대상에 대한 고찰

### 2-1. 주체로서 지역민에 대한 고찰

현시대의 지역민 개인은 다시 ‘현대성’ 안에서 이해될 수 있으며, 때문에 본 장에서 지역민을 다루기에 앞서 지역민이 속한 시대적 배경에 대한 통찰이 선행되어야 한다. 헤겔은 현대의 영역 밖에 놓여 있는 과거의 규범적 암시로부터 현대가 분리되는 과정을 철학적 문제로 부상시킨 최초의 철학자이다. 헤겔은 아무런 모범을 가지고 있지 않은 현대가 스스로 산출한 이중화로부터 안정을 확보해야 한다는 불안 안고 있다고 통찰한다.<sup>17)</sup> 이에 헤겔은 새로운 시대의 원리로서 주체성(Subjektivität)을 발견하고, 그가 주체성이라고 명명하는 자기관계의 구조가 일반적으로 현대를 특징짓는다고 보았다.<sup>18)</sup>

이러한 특징으로서 ‘포스트모더니즘(postmodernism)’으로 설명되곤 하는 ‘현시대’의 ‘개인’이란 헤겔이 현대 개념에서 고찰한 바와 같이 극단적이고 사전적인 단순 개념으로서의 ‘개인(individual)’에 점차 수렴되고 있다.

15) 황기원, 「도시의 정체성과 쾌적성」, 지방화시대의 도시정체성 회복과 조경의 과제를 위한 세미나, 한국조경학회, 1995, p.5

16) 계기석, 천현숙, 「지방화 시대의 도시 정체성 확립 방안 연구」, 국토연구원, 2001

17) 위르겐 하버마스, 『현대성의 철학적 담론』, 1994, p.36

18) 위르겐 하버마스, 위의 책, p.36

이 개인은 개념적으로는 전통적으로 정의되었던 모든 것으로부터의 자율성을 추구하는 존재로 이해될 수 있으며, 그가 속한 국가·민족 등의 구조로부터 존재적으로 구속받지 않는 자유의지를 가지는 존재로 설명된다. 하지만, 이와 동시에 이러한 모든 것으로부터의 해체로부터 현시대의 개인의 자율성은 사실상 전통과 같이 안정된 기반 없이 실존적으로 내던져진 상태에 놓이며, 이 때문에 현시대의 개인은 근원적인 불안, 즉 자아와 정체성의 불안이라는 새로운 문제를 겪게 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이에 에리히 프롬은 만일 지금 이 시대를 불안의 시대라고 불려서 큰 잘못이 아니라면, 그것은 주로 자아의 상실로 인해 야기되는 불안 때문인 것이라 서술한 바 있다.<sup>19)</sup>

‘현대 이전(pre-modern)’의 개인의 정체성이란 외부적으로 결정된 것이라고 이해될 수 있다.<sup>20)</sup> 막스 베버는 정체성에 관한 본격 모더니즘적 개념을 제공하였다. 신과 황제 및 칸트의 영역별 윤리의 필연성이 제거됨에 따라서, 우리들 자신의 주체성을 형성하는 책임은 우리가 지게 되었다.<sup>21)</sup> 전통 사회에 있어서 정체성은 사고와 행위의 영역을 설정해줌으로써, 사회적 역할을 부과하는 기능을 가졌으며, 세계 내에서 개인의 위치에 대한 방향성 및 종교적 잣대로서의 역할을 수행했다. 현대 이전 사회에 있어서 정체성이란 문제시될 수도 없었던 문제의 일종으로서, 반성이나 토론의 대상이 되지 못하는 종류의 문제였다. 현대성 속에서 비로소 정체성은 조금 더 유동적이고 복합적이며 개인적인 문제가 되었으며 끊임없는 회의의 대상으로서, 즉 변화와 급격한 변동의 대상이란 처지에 놓이게 되었다.<sup>22)</sup>

이는 포스트모더니즘이 지닌 패러다임의 불연속성과 다변성에도 기반하고 있다. 포스트모더니즘은 그 자체가 하나의 패러다임으로 인식되지만, 동시에 그 안에는 수많은 국소적 패러다임의 무한한 증식과 파편화가 내재되어 있다. 이 패러다임 간에는 서로 유연관계를 특정하기 어려우며, 다양성으로서만 그 관계를 포괄할 수 있다. 이러한 패러다임의 양적 폭발로 인해 개인은 자신을 둘러싼 세계의 현상 인식에 탈진을 일으키게 된다. 또한, 포스트모더니즘은 과거로부터 온전하게 단절되지 않으면서도 또한 계속해서 연결되는 것도 아닌 시간성을 지니고 있다. 이는 개인의 시간의식에 있어서

과지와 예지<sup>23)</sup>라는 ‘현재’의 시간 위상을 구성하는 시간의식의 활동을 무의미하게 만든다. 종합하면, 현시대의 개인이 가지는 ‘현재’는 연속적인 선형을 이루었던 과거와 달리 급격하게 점적으로 수렴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현시대의 개인은 본인과 본인을 포함한 세계의 정체성을 파악하는 데 있어서 가장 근본이 되는 동일성과 연속성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

이처럼 어떠한 전형과 규범도 없는 개인이 본인과 본인 세계를 구성하는 동일성과 연속성을 오직 자기 자신으로부터 독립적이고 실존적으로 온전히 창조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에 개인 정체성의 형성은 역설적이게도 주체성의 원리에서 벗어나게 되고, 외부적인 도움과 도구에의 의존이 필연적이며, 이 부분에서 사물이 개입하게 된다. 이에 진정한 의미에서 개인적 일체감에 대용(代用)할 많은 것들이 추구되어왔고 또 발견됐다. 민족·종교·계급·직업 등이 일체감을 조성하는 데 봉사한다. 현대사회에서는 이같이 서로 다른 동일화 과정들이 함께 작용하기도 한다.<sup>24)</sup> 이 지점에서 지역 정체성은 이러한 현대사회의 구조 속에서 지역민 개인의 정체성 형성과정에 대용되는 사물의 일종으로 생각할 수 있다.

## 2-2. 지역 정체성에 대한 고찰

‘지역’은 본래 일차적으로 전체 사회를 어떤 특징으로 나눈 일정한 공간 영역을 의미했다. 하지만 근대기에 도시가 건설되기 시작했을 당시에는 구역과 도시를 모두 개방된 평면으로 인식하여 계획하였고,<sup>25)</sup> 결과적으로 도시에서 살아가야 할 사람이 결여된, 물리적 실체만 가진 도시 공간이 형성되었다. 사람들은 이처럼 물리적 실체만을 가지고 있는 공간에서는 얻을 수 없는 경험에 대한 결핍을 느끼기 시작했고, 공간에 경험을 더하고 가치를 부여함으로써 공간을 점차 장소로 치환해 나가기 시작하였다. 공간은 추상적, 물리적, 기능적 성격을 가진 반면, 장소는 구체적, 해석적, 미학적 성격을 지니며, 공간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그들의 경험과 기억, 기대, 꿈을 바탕으로 그 공간에 나름의 의미를 부여하게 되면 그곳은 장소로 인식된다.<sup>26)</sup>

23) (과거)과지Retention와 (미래)예지Provention의 지향성은 후설의 저서 『시간의식』에 기반한 용어이며, 후설 현상학에서 ‘살아있는 현재’를 구성하는 과지-근원적 인상-예지 연속체로 이해된다.

24) 에리히 프롬, 『건전한 사회』, 1975, p.67

25) 김동명, 김종인, 「건축공간 구성에 나타난 ‘공간속의 공간’ 개념의 양상 및 적용에 관한 연구」, 1998, 대한건축학회, p.268

26) 오장근, 『도시 인식론』, 2018, p.135

19) 에리히 프롬, 『건전한 사회』, 1975, p.207

20) 스크 래쉬·조나단 프리드먼, 『현대성과 정체성』, 1997, p.12

21) 스크 래쉬·조나단 프리드먼, 위의 책, p.13

22) 스크 래쉬·조나단 프리드먼, 위의 책, p.172

이에 지역은 ‘장소’ 개념의 정립과 함께 어떤 대상이나 행위의 배경으로써의 공간이나 범위라는 의미를 넘어 그 자체로 독립적인 가치를 지닌 대상이 되고 역사·문화적 관점에서는 문화유산적 지위를 획득기도 하였다. 이러한 개념적인 제고에 따라 지역은 점차 하나의 살아있는 개체, 마치 하나의 주체와 같이 의인화되어 다뤄졌으며, 그 고유한 특성을 가진 실체로서 ‘정체성’을 부여받게 되었다.

환경, 또는 경관의 측면에서 정체성의 개념은 근래 환경심리학과 인간주의 지리학에서 인간과 환경사이의 체험적, 상호 반영적 측면을 중시하는 ‘장소’개념과 함께 등장하여 주목받기 시작하였으며, 이 정체성은 ‘장소성(placeness)’, ‘이미지(image)’, ‘상징성(symbolism)’, ‘장소감(sense of place)’등의 개념들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면서 인간과 환경의 인지적, 체험적 차원을 총체적으로 규명하는데 사용되었다.<sup>27)</sup>

‘장소에 대한 정체성’을 정의했던 철학가들을 살펴보면, 가브리엘 마르셀(Gabriel Marcel)은 ‘개인은 자신의 장소와 별개가 아니다. 그가 바로 장소이다.’<sup>28)</sup>고 말하고 있었고, 케빈 린치(Kevin Lynch)는 장소의 정체성을 장소에 개별성을 부여하거나, 다른 장소와의 차별성을 제공하며, 독립된 하나의 실체로 인식하게 하는 토대 역할을 한다고 간단히 정의했다.<sup>29)</sup> 또, 이안 나이른은 ‘장소의 정체성은 거기에 있는 사람들 수만큼이나 많다’고 정의했는데, 이들은 공통적으로 정체성은 도시의 물리적 요소만으로 인해 형성되는 것이 아니라, 도시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경험, 생각, 의도 등에 의해 형성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었다. 장소 정체성은 개인에 의해 형성되며, 이러한 정체성들이 결합하여 하나의 ‘지역 정체성’을 형성한다는 것이다. 앞선 학자들은 ‘지역 정체성’ 개념을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하고 있었다. 하나는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들의 지역정체성 혹은 ‘지역의식(regional itself)’이고 다른 하나는 지역 그 자체의 정체성(identity of a regional itself)이다.<sup>30)</sup>

전자인 지역의식으로써 지역 정체성은 다른 지역과 차별화 될 수 있는 특성을 부여해 줌으로 인해 그 지역만의 고유성과 상징성을 가지도록 해 준다. 또한 이

같은 외적 관계가 역으로 지역 내에서 구성원간에 응징되는 의식과 태도를 갖게 하므로 지역이란 범주는 역사적으로 형성된 지역 전통과 같은 지역성 위에 현재를 살아가는 주민들의 실질적인 사회적 관계가 포개지고, 이 지역적 사회관계가 전제로서 타 지역의 것과 대비, 경쟁하는 과정에서 지역 구성원들을 상대적으로 독특한 집단적 정체성<sup>31)</sup>, 즉 지역 정체성을 가지게 한다. 또, 후자인 지역 그 자체의 정체성은 그 지역의 역사적, 문화적 전통이나 사회적 관계 속에서 실질적으로 형성되거나 정치적 담론과 실천에 의해 구성되는 집합적 정체성이다. 이 또한 전자와 마찬가지로 다른 지역과 차별화되고 수사적으로 이용될 수 있는 그 지역의 객관적 특성을 의미한다.<sup>32)</sup>

지역의식과 지역 그 자체의 정체성은 두 가지 모두 그 지역에 산재해 있던 이미지를 문화적으로 재생산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문화적 재생산은 전통의 연속성을 보장해 주며, 지역의 범위 안에서만 산물이 발전해 나간다는 사실은 새로운 산물의 연결성을 보장해준다. 이 산물은 지역민의 행위를 제안하고, 그들의 정체성을 안정시킨다. 또한, 지역민들은 새롭게 등장하는 상황을 기존의 사회와 연결할 수 있는 수단으로써 사용함을 통해 지역 정체성의 당위성을 지켜나갈 수 있다.<sup>33)</sup>

### 3. 지역 정체성의 지역민 소외 아이러니

앞선 2장에서는 지역이 정체성을 정립해가는 과정과 그 의미 및 기능에 대한 기존의 이론을 종합하였다. 하지만 지역 정체성을 둘러싼 지역 사회의 갈등이나 지역민의 소외 현상은 기존의 지역 정체성의 형성에 관한 방법론들이 사회 구조적으로 실천되지 않는다는 반증이라 할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이를 특히 앞서 제시되었던 지역민에 의한 지역의식과 지역 그 자체의 정체성 간의 불합치로 드러난다고 보았다. 이에 본 장에서는 지역 정체성의 지역민 소외 아이러니를 다음과 같은 단계로 구분하여 설명하고자 한다. (1)지역 정체성은 인위적인 ‘생산물’로서, ‘생산’될 수 있으며, (2)이 과정에서 생산자와 수용자가 분리되고, 지역민은 실질적인 지역 정체성 형성에 있어서 생산자로 역할하기보

27) 김한배, 「한국 도시경관의 변천 특성에 관한 연구-경관과 그 정체성을 중심으로」, 1994, 서울시립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p.29

28) 에드워드 렐프, 『장소와 장소상실』, 2005, p.104

29) 에드워드 렐프, 위의 책, p.109

30) 이경현, 「완도군 보길도의 지역정체성 형성과정과 특성」, 전남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논문, 2012, p.15

31) 조일환, 「지역이미지, 리얼리티 그리고 지역정체성의 혼란, 한국지역지리학회」, 2013, p.701

32) 이경현, 위의 책, p.16

33) 위르겐 하버마스, 『현대성의 철학적 담론』, 1994, p.398

다 일방적으로 수용자의 역할을 강제당하는 상황 안에 놓이게 된다. (3)또한 이렇게 생산된 지역 정체성은 지역이라는 실재와 상관없는 기호로 전락하게 되며, (4)이 기호는 수용자뿐만 아니라 생산자까지 즉, 인간 자체를 소외시킨다는 것이다.

### 3-1. 생산물로서의 지역 정체성

공간과 장소, 그리고 본 논문에서 다루고 있는 지역 또한 본래 개념은 그 안에 담고 있는 무언가를 나타내는 ‘범주’이며 ‘범위’였다. 하지만 이후 이 개념들은 그 안에 담고 있는 것과 그 관계들을 모두 포함한 즉, 총체성을 특성으로 하는 ‘대상’으로 인식되기 시작하였다. 동시에 이러한 개념들은 ‘대상’으로서 계획하고, 설계하는 등 인위적으로 다룰 수 있는 것으로 여겨지곤 하였다. 이러한 관점을 공간을 주제로 하여 극명하게 드러내는 철학자가 앙리 르페브르이다. 르페브르는 공간을 ‘자연’의 사물, ‘문화’의 단순한 현상이 아니라 생산물로 간주<sup>34)</sup>하였으며, 본 논문에서 다루는 지역 개념 또한 그 생산양식에 있어서는 르페브르의 공간과 크게 다르지 않다. 새로운 생산양식(새로운 사회)은 기존의 장소, 예전에 빚어진 장소를 자신의 목적에 맞게 변화시킨다는 것, 즉 전유한다는 것이 기본 개념이 된다.<sup>35)</sup>

르페브르는 현대성에 의해 ‘생산된’ 공간에 대해 서술하며 그것이 동질성-파편화-위계화라는 매우 명확한 특성을 지니고 있음을 밝혔다. 현대성의 공간은 매우 다양한 이유(경영과 관리, 감시, 소통 방식 등) 때문에 동질성을 추구하는 경향을 보이며, 역설적으로 이 동질적인 공간은 토지 구획, 택지 등으로 파편화 되고, 엄격한 위계화를 동반한다는 것이다.<sup>36)</sup> 이 생산된 공간이 가지는 동질성은 지역 정체성이 충족되기 위한 구성 요소로서의 동일성과 개념적으로 긴밀하게 연결된다.

개인이 속한 현대성 그 자체는 무수히 많은 비균질적인 파편으로 이해되며, 현대사회의 실재는 이러한 ‘단자(單子)’들의 단순 집합체이다. 아주 미세한 이 낱알들은 서로 생소한 관계에 있으면서 이기적인 이익과 서로를 이용할 필요 때문에 함께 얽혀 있을 뿐이다.<sup>37)</sup> 때문에 실제의 지역은 이러한 개별 파편의 혼재로서 본래 단편적인 현상들로만 포착된다. 하지만 이를 집합

체라는 하나의 대상으로 인식하는 과정에서 그 대상은 지속적으로 공유하고 반복되는 본질적인 특성, 즉 일관된 동일성을 필요로 하게 된다. 또한, 이 동일성은 지속적으로 재현되어야 한다는 플라톤적인 과제를 안게 된다. 하지만 이 동일성을 확보하기 위해 발생하는 지역의 재생산과정, 다시 말해 동질화는 일종의 일반화, 추상화 과정이며, 역설적으로 ‘실제적’ 관계와 같등을 은폐하게 된다.<sup>38)</sup> 즉, 지역은 하나의 대상으로 드러나는 순간부터 자기 자신의 자연적인 형성을 멈추고, 인위적인 재생산만을 반복하게 된다는 것이다.

### 3-2. 지역 정체성의 일방적 수용자로서 지역민의 분리

헤겔주의에 의하면, 역사적 시간은 국가가 점차로 확대되며 지배력을 늘려가는 공간을 만들어낸다. 역사는 개개인 안에서 합리적 존재의 진형을 실현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의 지배를 받는 국가 영토의 한 부분을 점령하는 제도나 기관, 단체, 부분적인 체계(법, 윤리, 가족, 도시, 직업 등) 등을 통해서 실현한다.<sup>39)</sup> 여기서 개개인의 주체는 이 거대하고 구체적인 일반자인 국가 안에서 수많은 다른 실재들 중의 하나로 나타나는 개별적 자아로서의 자신을 발견하게 된다. 즉, 일반자는 개별자에 대해 우선성을 가지게 되며, 개별자로서의 개개인의 주체는 제도의 질서 속에 묵이게 된다.<sup>40)</sup>

그런데 이러한 일반자로서의 주체는 현대 자본주의의 심화와 함께 거대한 소비 사회 안에서의 일종의 생산된 모델로써 드러나는 경향을 보인다. 여기서 장 보드리야르와 기 드보르는 각각 현대사회를 소비의 사회, 스펙타클의 사회로 정의하며, 르페브르와 같이 현대 사회에서 발생하는 제반 과정을 자본주의 산업의 일부분으로 이해하였다.

보드리야르는 앞서 개별자에 우선하게 되는 일반자의 모델이 현대의 소비 사회 안에서 인위적으로 그 수가 감소되는 생산양식을 가지며, 독점적 집중이 일어남을 통찰했다. 그리고 이러한 산업의 독점적 집중은 사람들 간의 실제적 차이를 없애고 개념과 생산물을 균질화하며, 동시에 차이와 지배에의 길을 열었다는 것을 의미했다. 또한, 현대의 독점적 생산은 결코 단순히 재화의 생산만이 아닌 항상 제(諸) 관계의 (독점적) 생산이며, 여러 차이의 생산이기도 하다.<sup>41)</sup> 차이는 이러한

34) 앙리 르페브르, 『공간의 생산』, 2011, p.25

35) 위의 책, p.33

36) 위의 책, p.31

37) 에리히 프롬, 『건전한 사회』, 1975, p.143

38) 앙리 르페브르, 『공간의 생산』, 2011, p.31

39) 위의 책, p.65

40) 위르겐 하버마스, 『현대성의 철학적 담론』, 1994, p.63

모델들에 입각해서 교묘하게 생산되고 재생산되는 것이다. 즉, 지역민 개개인이 자기를 특징짓는 것은 지역 정체성이라는 어느 한 모델 및 양식과의 결합에 근거하게 되고, 이러한 방법 안에서는 개개인의 실제적인 차이와 특이성(singularité)이 포기된다.<sup>42)</sup> 즉, 지역 정체성이라는 대상이 점차 일반자로서 명확해지고 강조될수록 개별자인 지역민은 일반화된 이(재)생산된 거대한 모델 속으로 점차 수렴하게 된다는 것이다.

드보르는 현대적 생산 조건들이 지배하는 사회에서 모든 삶은 스펙타클의 거대한 축적물로 나타난다고 주장한다. 이 스펙타클 안에서 개개인이 매개 없이 직접 경험했던 모든 것은 표상 속으로 멀어지게 된다.<sup>43)</sup> 그가 통찰한 도시계획은 자본주의에 의한 자연·인간 환경의 점유를 의미한다. 자본주의는 지배 논리에 따라 발전하면서 공간을 자의적으로 개조할 수 있다는 것이다.<sup>44)</sup> 여기서 개개인이 실제로 직접 경험된 것은 사회가 공인한 불가역적 시간과 관계가 없으며, 분리된 일상생활에서의 개인적 경험은 언어나 개념이 부재한 채로, 이를테면 어느 곳에서도 기록되지 않은 자신의 과거에 대한 비판적 접근도 없는 채로 존속한다. 이 구조 안에서 개인적 경험은 소통되지 않는다. 개인적 경험은 스펙타클적인 가장된 기억을 위해 진가를 인정받지 못하고 망각된다.<sup>45)</sup>

결국 이러한 현대의 생산양식 내에서는 지역 정체성 형성과 같이 지적인 작업 또한 물질적인 작업과 마찬가지로 분화되는 과정을 보여준다. 이러한 분화 과정에는 생산의 독점화가 따르며, 이에 지역 정체성 형성에서도 마찬가지로 생산자와 수용자가 분리되는 경향을 보인다. 이 과정 안에서 지역민 개개인을 표방하는 개인주의는 표면적인 것으로 격하되며, 생산된 지역 정체성 안에서 지역민은 주체로서의 유동성(流動性)을 상실하고, 자기만의 고유한 현실을 발견할 수 없게 된다.

### 3-3. 지역 정체성의 기호화

앞에서 살핀 바와 같이 현대적 생산양식 안에서 지역이라는 총체적 대상을 인식한다는 것은, 그 안에 속한 개개인을 지역민이라는 하나의 유(類)로 만드는 추상화작용을 동반한다. 동류(同類)의 다른 대상들과 공

통되는 특성만을 강조함으로써, 어떤 부분은 강조하고 어떤 특성은 무시되는 것이다. 이 추상작용 안에서 지역민 개개인은 그 자체로 구체성이나 독자성을 가진 사람으로 인식되지 못하고 지역을 경유해서만 인식될 수 있는 일반 개념으로 이해된다.<sup>46)</sup> 실제로서는 완전한 파편들의 무질서한 합인 지역의 총체성은 이러한 기호화를 통해 인식할 수 있는 하나의 대상이 된다. 기호화는 스스로 가지고 있는 실증성과 외연적 의미를 통해 생산된 기호를 사회적인 가치의 합의로 이끌어내며 추상작업이라는 초현실적인 흔적을 은폐한다.<sup>47)</sup>

기호로 생산된 대상은 객관성, 보편성, 실증성의 보증을 통해 실제성을 가지게 되며, 단순히 상징으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현실적인 사용가치를 표방한다. 이에 대해 르페브르는, 대상은 그것을 즐긴다는 향유감을 선사하며, 겉으로 드러나는 외양과 환상은 기만적인 기호와 의미를 지탱해주는 실현 매체로서의 사물에 깃들여 있다고 주장한다.<sup>48)</sup> 또한 보드리야르는 기호가 외연적으로 가지게 되는 의미 및 사용가치, 객관성 또는 유용성은 현실이 약화와 맺는 공모라고 비판한다.<sup>49)</sup> 지역 정체성은 기반 없는 온전한 허상이 아니라, 그 안에 실재하는 요소들의 보편화를 통해 형성되며, 미시적인 이해관계에 저촉되지 않는 지식의 이름으로 통용되며 객관성, 실증성을 담보한다. 또한 그 안의 지역민과 연루되면서 그 개개인의 자아를 규정하고 동화되는 방식으로 그 외연적 의미에 있어서도 실제성을 드러낸다. 이로써 지역 정체성은 스스로 기호임을 은폐할 수 있다. 기호는 총체적인 것으로 보이고 자체의 추상적인 초월성의 흔적을 지우며 의미의 현실 원칙으로 자처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sup>50)</sup>

때문에 지역 정체성의 인식에서 가장 문제시 되는 부분은, 지역 정체성이 지역에 대한 투명한 반영이라고 신뢰하는 것이 된다. 프롬은 절대다수의 사람들이 어떤 공통의 인식과 감정을 가지고 있을 경우, 그것은 으레 타당한 것으로 인정된다는 것을 통찰하였다. 그리고 이를 한 사회의 구성원의 ‘합의(合意)에 의한 확인’이라 정의하였다. 프롬은 이는 실제와 멀어지는 과정이며, 그 사회 구성원을 기만하는 것이라 비판하였다.<sup>51)</sup>

46) 에리히 프롬, 『건전한 사회』, 1975, p.117

47) 장 보드리야르, 『기호의 정치경제학 비판』, 1992, p.179, p.181

48) 르페브르, 『공간의 생산』, 2011, p.48

49) 장 보드리야르, 앞의 책, p.176

50) 장 보드리야르, 『기호의 정치경제학 비판』, 1992, p.182

51) 에리히 프롬, 『건전한 사회』, 1975, p.22

41) 장 보드리야르, 『소비의 사회』, 2015, p.130

42) 장 보드리야르, 위의 책, p.129

43) 기 드보르, 『스펙타클의 사회』, 2015, p.13

44) 기 드보르, 위의 책, p.169

45) 기 드보르, 위의 책, p.158



앞서 지역 정체성의 특성 중 하나인 동일성이 '생산' 안에서 지역 내부적으로 동질화, 균질화를 의미하는 것에 불과하고, 개별성은 지역 외부적으로 지역 간의 단순한 차이 생산을 의미하는 것이라면, 지역 정체성은 지역에 대한 반영으로 볼 수 없는 것이다. 현대의 지역 정체성이란 일종의 사회적 생산물이고, 그 형성은 언어 구조주의적 활동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이 사회적 산물에 대해 지역민 개개인은 피동적으로 그것을 수탁하게 된다. 이러한 구조로 비추어 보았을 때, 지역 정체성과 지역민이 상호적 관계에 있지 않음이 드러나고, 지역 정체성의 형성이 실제의 반영과는 상관없는 일종의 기호화라는 개념이 밝혀진다.

### 3-4. 지역 정체성의 물신화

이렇듯 실제로서 지역의 한 부분은 기호화되어 지역 정체성이라는 이름으로 세계의 전면에 표상된다. 생산된 기호는 사고에서는 물론 행위에서도 도구 구실을 하는 동시에 다시 생산의 수단이 되며 통제 수단, 따라서 지배와 권력의 수단이 될 수 있다.<sup>52)</sup> 이것이 앞서 설명되었던 기호의 외연적 기능이다. 하지만 기호는 점차 실제의 지역을 능가하고 대체하는 양상을 보인다. 이에 문제는 앞서 설명한 기호의 생산에 있어서 단순히 생산자와 수용자의 분리를 넘어서게 된다. 기호가 실제에 대해 우위를 점해감에 따라 생산 주체가 불분명해지며, 주체는 이 생산물에 대한 제어 능력을 상실하게 되는 것이다. 때문에 우리는 지역 정체성의 생산에 있어서 생산자와 수용자가 분리되어 있음을 인지할 수 있으면서도, 그 생산자로서의 특정한 주체를 곧바로 지시할 수 없게 되는 것이다. 즉, 지역 정체성의 존재 목적은 다시 지역 정체성을 지향하는 폐쇄적인 순환 구조 안에서 유지된다. 이 구조에서 주체는 사라지고 지역 정체성을 둘러싼 갈등은 이해할 수 없는 불명의 문제로 남게 된다.

이러한 현상이 지역 정체성의 물신화이며, 이로써 지역 정체성에 의한 지역민 소외는 인간 주체에 대한 전면적인 소외로 번져나갈 수 있다. 여기서 물신화란 기호에 대한 것이 아니고, 기표에 대한 숭배, 곧 대상에서 '인위적이고' 변별적이며 약호화(略號化) 되고 체계화된 것에 주체가 사로잡히는 사태<sup>53)</sup>이다. 소외란 스스로를 따돌림 당한 사람이라고 느끼게 되는 경험형식을 뜻하며, 인간은 스스로를 자기 세계의 중심체나

자기 행위의 창조자로 느끼지 못하게 된다. 자신의 행위와 그 행위의 결과가 주인공이 되어 복종과 심지어 숭배까지 강요하게 된다.<sup>54)</sup>

하지만 실제 지역 사회에서는 이러한 소외를 발견하지 못하거나 이에 대해 무관심하다. 지역 정체성에 의한 소외에 관해서는 단지 몇몇 개별적인 지역민의 이해 갈등과 사소한 불만 등의 징후로만 포착될 뿐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무관심의 배경에는 프롬이 통찰한 사회의 구성원의 '합의(合意)에 의한 확인'이 앞선 설명에서와 같은 방식으로 작동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사회의 대다수의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과 같은 결함을 공유한다면, 개개인은 그것을 결함으로 보지 않으며, 다른 사람들과 다르기 때문에 발생하는 불안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자유와 자발성(自發性)이 모든 인간이 추구하는 객관적인 목표라고 가정할 때, 어떤 한 사람이 자유와 자발성과 진정한 자기 표현력을 얻지 못했다면 그는 심한 결함을 갖고 있다고 간주할 수 있다. 때문에 어떤 사회의 대다수 구성원이 이와 같은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다면 이 현상은 '사회적으로 보편화된' 결함으로 다뤄져야 한다고 본다.<sup>55)</sup>

지금까지에 고찰을 통해 본 지역 정체성의 문제는 단순히 지역민이 이러한 분위기와 체계에 대해 부정적으로 수용하거나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 등의 가시적인 문제를 넘어서야 한다. 지역민의 지역 정체성의 무비판적인 수용과 신뢰, 사회적인 합의 또한 한편으로는 그 개개인이 주체성을 상실해가는 소외의 과정 안에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점차 그 스스로를 목적으로 하는 지역 정체성의 물신화는 사회 전체의 신뢰와 합의 속으로 녹아들 때 비로소 완성되고 사회적 통제 수단의 제어를 벗어남을 직시해야 한다.

### 3-5. 소결 및 제언

이 지점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현상을 다시 돌아볼 수 있다. 역사적 지역이라고 하는 어떤 대상은 그 자체로서는 다양한 시·공간적 파편의 무질서하고 무의미한 잡동사니의 총체에 불과하다. 이 동적인 실체는 개개인의 선협에 근거하여 매 순간 다른 모습으로 포착된다. 사실상 이 지점까지가 지역의 실제라고 부를 수 있는 대상이 된다. 하지만 지역의 개념을 이처럼 단순한 파편의 집합으로 방치하는 것에는 무리가 있다. 앞서 2장에서 지역민 개개인과 지역에 대한 관계를 설명한 바

52) 앙리 르페브르, 『공간의 생산』, 2011, p.71

53) 장 보드리야르, 『기호의 정치경제학 비판』, 1992, p.94

54) 에리히 프롬, 『건전한 사회』, 1975, p.124

55) 에리히 프롬, 위의 책, p.23

와 같이 두 개념은 각각 완전히 독립되고 고립된 개념이 아니며, 상호대화적 관계에 있으면서 서로의 정체성을 정의내리는 필요충분조건이 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본 장에서는 지역이 현대의 거대한 소비 사회의 생산양식 안에 들어오게 되면서 그 일부분이 대상화됨을 파악하였다. 이로써 지역 정체성이 스스로를 목적으로 대하며 그 안의 지역민을 수단으로 취하고 있음이 드러났다. 이러한 지배력이 온전히 인간 주체의 통제 능력 안에 머물지 않음을 밝혔다.

지역 정체성에 의한 지역민 소외는 그 발생 과정을 역추적함으로써 근원적 문제를 발견할 수 있다. 일차적으로는 지역의 대상화에 있어 정초주의적(foundationalism) 오류가 행해지고 있는 것이다. 지역의 속성들이 어떠한 인지활동보다 먼저 확정되어 있다고 믿음으로써 인식의 토대를 구축하는 것이다.<sup>56)</sup> 특히 역사적 지역에 있어서는 과거의 실재(reality)가 객관적으로 존재한다고 여기며, 이를 사실에 기반하여 복원함으로써 그 자체의 정체성을 찾을 수 있다는 실증주의적 오류도 여기에 맥락을 같이한다. 이 일차적 대상화의 오류는 지역과 지역민 간의 상호대화적 관계를 단절시킨다. 이원화된 지역과 지역민의 관계는 일반자와 개별자의 관계로 다시 포착되며 이로써 지역민은 지역에 있어 순응적인 존재로 전락하게 되는 것이다.

이차적으로는 개개인의 삶과 주변 환경에 대한 제어권의 상실을 전체 사회 시스템 안에서 제도화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제도들은 공리를 표방하며 사회의 전면적인 합의를 이끌어낸다. 이에 지역민이 자기 자신과 자기를 둘러싼 지역 환경에 대해 불만스러워하고 실망하는 것은 개인적인 문제로 격하된다. 이는 사회적으로 합의된 패러다임 스스로에 의한 재확인 반복이며, 그로 인한 소외와 지배구조를 공고히 한다.

본 논문에서 파악된 문제에 대한 전반적이고 즉각적인 해결 방법을 제시하는 것은 무리이다. 이에 이러한 제 문제를 다루고 있는 최근의 인문·사회학적 변화를 제시하는 제언으로 갈음하고자 한다. 우선 지역이라는 대상에 대한 이해 방식의 전환이 필요하다. 지역의 실재를 받아들임에 있어서 지역은 고정된 실체가 있는 것이 아니며, 매 순간 생동하며 우리의 인식에 단편적으로 포착될 뿐인 현상학적 대상으로 이해되어야 한다. 때문에 지역에 대한 이해는 지역과 지역민 간의 해석학적 순환에 대한 이해를 전제로 한다. 지역의 실재는 발견되는 것이 아니라 이 상호대화 과정 자체로서 존

재함이 받아들여져야 한다. 이로써 지역민 개개인에 의한 일종의 재현이며 개별적인 의미형성 작용인 서사(narrative)에 주목할 필요성이 주어진다.

실천적인 측면에 있어서는 지역에 대한 지역민들의 제어권이 점진적으로 회복되어야 한다고 제언한다. 인간은 자기를 둘러싸는 세계를 변모시킴과 동시에 자신을 변모시키고 있으며, 이로써 인간은 바로 자기 자신을 창조한다.<sup>57)</sup> 제도로 인해 지켜지는 공리의 실제에 대해 부정할 수 없지만, 제도가 이러한 지역 정체성을 온전히 제어하는 것은 원론적으로 불가능하다. 하지만 반대로 지역에 대한 제어권을 방임적으로 지역민에게 돌려주는 것은 지역의 파편화를 가속화하고 제도로서 유지되던 사회 질서를 무너뜨릴 가능성이 크다. 이에 점진적인 제어권 회복이란 지역민을 지역과의 해석학적 순환에 참여시키는 것을 전제로 한다. 이는 지역에 대한 이해가 패러다임적 지식의 형태로 제시되는 것이 아니라, 상대적으로 가공되지 않은 지역의 텍스트에 대한 지역민의 접근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전환하는 것을 방법으로 한다. 지역민은 텍스트에 대해 주체성을 가지며 개개인의 의미와 경험을 통해 서사를 축적할 수 있다. 이러한 서사는 개인을 넘어 지역민간에서 교차될 이룰 수 있으며, 이렇게 지역 안에서 망을 형성한 서사는 제도적인 규제를 대신할 도덕적인 압력으로 작동할 수 있다고 본다.

#### 4. 마치는 말

본 논문에서는 역사적 지역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갈등 상황과 표출되지 않은 병리적 잠재성을 이해하기 위해서 지역 정체성에 의한 지역민 소외에 대해 문제의식을 제기하였다. 이에 지역을 대상화하고 그 정체성을 형성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지역민 소외의 구조적 근원에 대해 설명하고자 하였다. 본 논문에서 파악한 지역 정체성의 지역민 소외의 과정은 지역의 대상화-지역 정체성의 기호화-지역 정체성의 물신화 3단계로 구분하여 설명할 수 있었다. 그 과정에 있어서 지적 작업의 생산양식 편입과 생산자의 분리, 생산물에 대한 주체의 제어 능력 상실을 문제 상황으로 지적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문제 상황에 관해 지역에 대한 인식의 전환과 서사를 통한 지역민의 제어권 회복을 제언하였다. 하지만 본 논문에서는 앞선 담론의 결과가 지역민 개개인에 대한 휴머니즘적 구제를 위해 현재 사회 전

56) 강현석, 『인문·사회과학의 새로운 연구방법론』, 2016, p.59

57) 에리히 프롬, 『건전한 사회』, 1975, p.21

체가 공유하는 공리적 가치를 모두 파괴하자는 상황으로 치닫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다. 다만 우리가 공리 등의 대의적 명분과 그로 인한 합의의 저변에 대해 의구심을 가질 필요가 있으며,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사회의 병리적 징후에 대해 끊임없이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것을 주장하는 바이다.

다시 역사적 지역을 포함한 문화유산의 거대담론으로 돌아오면, 문화유산을 대하는 입장에 서서 지역을 바라볼 때, 그 범주의 확장에 있어 직접적으로 ‘사람’ 그 자체가 유산의 범주 안으로 들어오면서 거대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직시해야 한다. 문화유산을 “어떻게 보존할 것인가”는 문화유산 보존을 직면한 상황에 있어서 언제나 발생하는 난제이다. 이는 앞선 질문에서의 ‘어떻게’가 단순히 방법을 의미하는 것이 아닌 그 방법에 딸려오는 ‘왜’라는 질문에 쉽게 답을 내릴 수 없기 때문이다. 이는 다시 문화유산이라는 대상이 어떤 방식으로 존재하며, 우리의 인식이나 행위가 이 존재방식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그 영향이 다시 사람에게 어떤 방식으로 과급효과를 가져올지 직관적으로 인식되지 않기 때문이기도 하다.

이로써 문화유산 보존 대한 가장 원론적인 관점은 윤리로 회귀할 수밖에 없게 된다. 우리는 문화유산 보존이 기본적으로 공공선으로서의 대의적 명분을 가지고 있다고 믿고 있으면서도, 무엇이 문화유산 보존으로서 이를 수 있는 진정한 가치 즉, 윤리적 의미로서의 ‘선’인지 명확히 알지 못하고 있거나 혹은 이에 대해 관심이 없다. 이는 문화유산 보존의 궁극적인 목표점이 문화재 그 자체에 머무르고 있다는 한계로부터 발생하며, 대체로 이러한 한계는 문화유산이 지금 반드시 행위가 일어나야 한다는 시급성과 문화유산이라는 대상 자체에 대한 인식의 협소성 때문에 쉽게 은폐되곤 한다.

위와 동일한 질문은 과거로부터 지속적으로 이어져 왔지만, 사실상 그 내용은 시대의 흐름에 따라 근본적인 변화를 겪고 있다. 이는 시대 흐름에 따라 문화유산의 개념이 변화해 왔으며, 문화유산을 대하는 사람과의 관계 그리고 사람 그 자체까지도 또한 변화해 왔기 때문이다. 따라서 문화유산 보존에 관한 방법론 또한 모든 시대가 동일하지 않으며, 현시대는 현시대의 문화재와 현시대를 사는 사람에게 걸맞은 문화유산에 관한 인식론과 보존 방법론에 대해 새로운 고찰이 지속적으로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이론적 고찰을 통해 문화유산의 거대

담론 안에서 지역 내부의 문제적 현상을 바라보았다. 하지만 문화유산을 둘러싼 지역의 갈등 구조는 일원적이지 않으며, 따라서 본 논문의 연구 방법으로써 문화유산을 둘러싼 지역 사회의 모든 갈등 구조를 이해하는 것은 분명한 한계가 있다. 문화유산과 사람 및 사회와의 관계는 계속해서 확장하고 진화하는 문화유산 개념 연구에 있어 지속적으로 발전시켜야 할 핵심적인 담론이며, 이는 앞으로 더욱 다양한 방향으로 전개될 필요가 있다고 본다. 특히 본 논문의 결론부에서 제언으로 다루었으며 문화유산 분야에 있어 새로운 연구 방법론으로 주목받는 개념인 서사(narrative)에 대해서는 후속 연구에서 다시 구체적으로 다루고자 한다.

#### 참고문헌

1. 이수정, 『문화재 보존윤리』, 2017
2. 카를 마르크스, 『1844년 경제학 - 철학 수고』, 2006
3. 앙리 르페브르, 『이론』, 1992
4. 박소영, 『앙리 르페브르:도시의 일상』, 2008
5. 기 드보르, 『스펙타클의 사회』, 2014
6. 박정자, 『시뮬라르크의 시대』, 2019
7. 장 보드리야르, 『소비의 사회:그 신화와 구조』, 2015
8. 에리히 프롬, 『건전한 사회』, 1999
9. E. Relph, 『Place and Placelessness』 (London : Pion Ltd), 1976
10. 오장근, 『도시 인식론』, 2018
11. 에드워드 렐프, 『장소와 장소상실』, 2005
12. 위르겐 하버마스, 『현대성의 철학적 담론』, 1994
13. 앙리 르페브르, 『공간의 생산』, 2011
14. 기 드보르, 『스펙타클의 사회』, 2015
15. 장 보드리야르, 『기호의 정치경제학 비판』, 1992
16. 강현석, 『인문·사회과학의 새로운 연구방법론』, 2016
17. 신혜정, 「도시 정체성 재정립을 위한 지역자산 활용 방안에 관한 연구」, 영남대학교 대학원, 2021
18. 김규원 등, 「대구의 정체성 정립 및 도시브랜드 가치 제고 방안」, 대구경북연구원, 2010
19. 김현석, 변은영, 윤정인, 「서울색과 도시 정체성에 관한 연구」, 디자인학연구, 2012
20. 황기원, 「도시의 정체성과 쾌적성」, 지방화시대의 도시정체성회복과 조경의 과제를 위한 세미나, 한국조경학회, 1995
21. 계기석, 천현숙, 「지방화 시대의 도시 정체성 확립 방안 연구」, 국토연구원, 2001
22. 김동명, 김종인, 「건축공간 구성에 나타난 ‘공간속의

## 18 논문

- 공간' 개념의 양상 및 적용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 1998
23. 김한배, 「한국 도시경관의 변천 특성에 관한 연구-경관과 그 정체성을 중심으로」, 1994, 서울시립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24. 이경현, 「완도군 보길도의 지역정체성 형성과정과 특성」, 전남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논문, 2012
25. 조일환, 「지역이미지, 리얼리티 그리고 지역정체성의 혼란」, 한국지역지리학회, 2013
26. 마르셀로 무스토, 「마르크스 소외 개념에 대한 재논의」, 경상국립대학교 사회과학연구원, 2011
27. 박홍원, 「인간 소외와 커뮤니케이션: 마르크스 소외 이론의 현재적 함의」, 2014

접수(2021. 12. 27)

수정(1차: 2022. 02. 02)

게재확정(2022. 03. 05)